



유럽, 불법 농약의 법적소송 승리

유럽 작물보호협회(Europe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바스프(BASF), 바이엘 및 듀폰 등 유럽의 3개 소송에서 불법 및 위조농약에 대하여 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바스프는 독일 농약회사 Realchemie Nederladn(Eindhoven)社를 상대로 불법 보상수입(parallel import)과 관련하여 소송을 내 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보상수입으로 Realchemie社는 바스프의 유채 제초제인 Nimbus CS (metazachlor+clomazone)과 유사한 제품을 45,420 t 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Realchemie社는 자사 제품이 Nimbus CS와는 화학적으로 유사하지만 바스프의 제품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바스프는 metazachlor 사용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고 사전 금지명령을 얻어냈다. 사전 중지명령에 따라 2008년에 최종적인 법적조치가 바스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ECPA는 전하고 있다.

불법농약과 관련, 스페인에서는 법원에서 3명의 피고인에게 “공공보건 및 소비자에게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3명은 스페인에서 농약을 등록하지 않고 몇몇 농약을 판매하였다. 또한 제품에 적절한 라벨을 붙이지 않아 “심각하게 안전사용을 손상”시켰다. 몇몇 제품에서는 바이엘 살충제인 imidacloprid가 포함되었다. 법정에서는 이들에게 벌금과 농약관련 모든 행위 금지를 내렸다.

또한 폴란드 위조농약의 경우이다. 듀폰은 Golub-Dobrzy 지방법원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Wabrzezno 검찰은 듀폰의 기술을 이용하여 위조농약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소송을 냈다. 소송이 2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위조농약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럽작물보호협회(ECPA)는 유럽 작물보호 위조농약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3개 회사가 포함된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판결이 지나치게 길었으며,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험을 끼친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사례가 독일에서도 발생되었다. Hamburg 사업가가 EU금지 농약, nicotine sulfate를 조경회사에 공급한 불법농약 파문이 전 독일을 덮고 있다고 독일 신문, Die Welt는 보도하고 있다. 관계당국자는 nicotine sulfate 19톤을 압수하였고, 약 200 t에 해당하는 양의 라벨에서는 독성물질 경고가 합법적인 물질이라는 표시로 바꾸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살충제는 식료품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작물보호협회(IVA)에서는 산업계에 불명예를 불러온 Hamburg 상인들뿐만 아니라 미 승인된 물질을 사용한 개인행위에 대하여도 힐난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등록당국자가 불법 농약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당국자가 작물보호분야의 일자리를 축소한 것이 인력부족을 야기하지 않았는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 농약사용 도모

영국 농업마케팅 자문, 혁신 관리팀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작물 재배가 증가됨에 따라 농약사용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바이오연료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까지 세계의 3대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되어 약 48억달러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오연료를 위한 옥수수 재배에 약 25억달러, EU에서는 유채에 15억5천달러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사탕무에서 7억5천달러의 농약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이 2007년 2천1백50만ha에서 2013년까지 3천7백50만ha로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배면적의 약 65%는 옥수수가, 21%는 사탕무가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작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면적은 2007년 6백60만ha에서 1천8백90만ha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 53%는 유채가, 24%는 대두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주요재배 작물 발표

중국 농업성의 중국 작물 생산 정보망에 의하면 2007년 중국의 작물재배 면적은 1억3천 550만ha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재배된 작물은 옥수수로 2천950만ha가 재배되었으며, 뒤를 이어 벼가 2천890만ha에서 심어졌다.

옥수수는 주로 북부 중국 평원으로 알려진 중국 북쪽에서 재배되었다. 벼는 비옥한 퇴적층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남부 저지대에서 나오고 있다. 남부 장시성 지역에서 3백만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허난성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큰 재배지역이다.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ISAAA)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은 세계 6번째로 유전자 변형작물의 재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충저항성 Bt면화가 380만ha 면적에서 재배되었다. 또한 유전자 변형 토마토, 백

양, 피튜니아, 파파야 및 피망이 재배되었다.

특정 병해충에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 변형 다양한 벼가 포장시험을 거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벼는 전형적인 벼보다 평균 2-6% 높은 수량 보이고 있다. 이는 특정 병해에 대한 농약살포가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마케팅 및 고문회사인 ARN에서 전하고 있다.

중국, 국립농약연구소 설립

중국은 장쑤성 Xinyi에 국립 농약연구개발 공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과학기술성으로부터 다른 10여개 기관 및 연구소와 함께 승인 받은 이 연구소는 주요 작물 병해를 방제하고, 재산권 개발 및 혁신적인 농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5개 연구계획을 설정하였다. 연구소는 장쑤성 Lanfeng 생화학 기술센터내에 위치하고 있다.